

연 세 대 학 교

제 12 대 총 여 학 생 회

우 120-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/ 전화 361-3645 / FAX 361-3645

문서번호 00-

시행일자 2000. 3. 16

수 신 총학생회

선 결			지 시		
접 수	일자		결 재 공 람		
	시간				
	번호				
	처리과				
	담당자				

제 목 : 2000년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부총학생회장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

1. 2000년, 학생의 권리와 이 땅의 민중,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항상 투쟁하고 계신 총학생회 수고하십니다.
2. 이번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 총여학생회는 제37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연세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부총학생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.
3. 지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제37대 총학생회에서 각 단대의 과반학생회를 인사차 돌아다니던 중 문과대 심리 11반의 술자리에서 부총학생회장, 배의철 군이 한 여학우에게 평소같았으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텐데, 새터 내규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총여학생회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이 사실을 한 학우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. 새터 반(反)성폭력 내규는 제37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월 8일에 있었던 임시비상확대운영위원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, 임시비상확대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. 따라서 부총학생회장은 제37대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의 한 일원으로서 새터 반(反)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를 연세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새터 반(反)성폭력 내규를 회화화시켰다고 총여학생회는 판단하고 그러한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 연세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총여학생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37대 중앙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.
2.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연세학우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과문을 민주광장에 게시하십시오.

끝.